

아동의 자기효능감 및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창의성과의 관계

Relationships between Children's Self-Efficacy, Parental Child-Rearing Attitude Perceived by the Child and Creativity

경북대학교 아동가족학과
석사 장혜선
교수 최보가

Dept. of Child & Family Studies, Kyungpook National Univ.

Master : Jang, Hye-Sun

Prof. : Choi, Bo-Ga

목 차

- | | |
|-----------|-------------|
| I. 서론 | IV. 결론 및 논의 |
| 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 III. 연구결과 |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s between children's self-efficacy, parental child-rearing attitude perceived by the child, and creativity.

The study subjects were 120 5th and 6th graders at elementary school in Gyeongbuk.

The instruments of measurement were question sheets, Self-Efficacy Scale, and Parental child-rearing attitude Scale. For creative thinking tests, the Kim Yong-Chae version of TTCT (Torrance Test of Creative Thinking) was used. The data were analysed through mean, standard deviation, frequency, percentile, Cronbach's α , and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 results from the correlational analysis didn't yield significant and meaningful correlations between children's self-efficacy and thinking creatively with words. Nevertheless, children's self-efficacy was partly related to thinking creatively with pictures.

Second, the results from the correlational analysis didn't yield significant and meaningful correlations between warmth vs. rejection attitude of father and thinking creatively with words. Warmth vs. rejection

attitudes of father was not related to thinking creatively with pictures. However, the results from the correlational analysis yielded a number of significant and meaningful correlations between self-control vs. regulation attitudes of father and the thinking creatively with words. The self-control vs. regulation attitudes of father was significantly positively related to the thinking creatively with pictures.

Third, the warmth vs. rejection attitudes of mother was significantly positively related to the thinking creatively with words. However the warmth vs. rejection attitudes of mother was not related significantly to the thinking creatively with pictures. The self-control vs. regulation attitudes of mother was not related to the thinking creatively with words. Moreover, self-control vs. regulation attitudes of mother was not related to the thinking creatively with pictures.

주제어(Key Words): 자기 효능감(self-efficacy), 부모의 양육태도(parental child rearing attitude), 창의성(creativity)

1.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문제제기

현대의 지식화·정보화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빠른 변화에 적응하고, 새로운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인간상이 요구된다. 따라서 이러한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 아동들에게 창의성은 그 어느 때 보다도 중요한 능력으로 부각되고 있다. 아동기는 창의성의 결정적 시기(Torrance, 1962)이며, 창의성의 내적 강화의 시기(Lesner & Hillman, 1983)로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어른들에 비해서 생각과 행동상의 제약을 더 많이 경험해야 하는 우리나라 아동들에게는 창의성은 오히려 위축되고 시들 수 밖에 없었으며(윤종건, 1998), 지식 위주의 암기식 교육, 입시위주의 교육환경도 창의성 발달에 크게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게 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아동기의 창의성에 관한 연구는 바람직한 창의성 교육을 위한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아동이 창의적인 성인으로 성장하도록 돕는데 의의가 있을 것이다.

창의성에 관한 연구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내용은 창의적인 개인에 관한 부분이다(전경원, 2000). 창의성의 핵심적 요인은 개인이고, 개인이 존재하여야 창의적 과정을 통해서 창의적 산물이 산출된다(김명숙, 2001).

창의적인 개인을 연구한 경향을 살펴보면, '창의적인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며,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집중하고 있다(김영채, 2002).

창의적인 개인에 관한 연구는 Guilford(1950)가 창의적인 사람의 특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이후 창의적인 개인의 특성을 밝히는 방향으로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창의적인 개인의 대표적 특성이 연구마다 다양하게 나타나 어떤 것이 창의적 개인의 특성이라고 일반화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창의적인 개인에 관한 연구는 이미 이루어져 왔던 창의성 연구에 기초를 두고 있는 것으로서, 주로 창의적인 사람들의 특성을 찾아내고, 그 특성을 일반화 시켜 창의성 발달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로 삼아왔다(김원경, 우남희, 2002). 또한 창의적 개인에 관한 연구는 대부분 창의적인 예술가, 작가, 과학자 및 천재의 특성에 관한 연구가 많았고, 창의적인 아동의 특성에 대한 연구는 미미했다. 천재의 특성과 일반인의 특성을 동일선상에 놓기 어렵고, 예술가의 특성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창의성, 아동에게 나타나는 특성과 성인에게서 나타나는 특성에 대한 차이나 공통점을 찾아내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전경원, 2000). 따라서 천재적인 특성을 연구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각기 다르게 나타나는 특성을 일반화시켜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며, 성인에게 나타나는 특성을 아동들에게 적용하는 것 또한 무리가 있다. 즉, 일반 아동들의 개인적 특성 중 어떤 특성이 창의성과 관계가 있는지를 알아보는 연구는 아동의 창의성을 발달에 도움이 될 것이다.

Amabile(1998)는 아동의 창의성 향상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요소가 바로 '내적 동기 유발'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Amabile(1995)와 그의 동료들의 연구에 의하면 사람들은 외적인 압박이나 보상 때문이 아니라 흥미, 즐거움, 만족과 도전 등 내적으로 동기 유발될 때 가장 창의적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견해에서 볼 때 개인이 과제 수행에 투입하는 노력의 양과 지속성, 활동의 선택, 사고의 패턴 및 정서반응을 결정하는 내적 동기원으로 작용하는 자기효능감이 창의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최근 김원경과 우남희(2002)가 아동의 창의성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인 관련 변인을 연구한 결과, 자기효능감이 창의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으로 보고하였다. 그러나 창의성의 예언 변인으로서의 자기효능감의 효과는 기존의 창의성 연구에서 간과하였다. 또한 배진수와 이영만(2000)이 자기효능감과 창의성과의 상관을 연구한 결과 예상과는 달리 상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김민정(2000)은 아동의 자기효능감의 고·저에 따라 창의성 수준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밝힘으로써 자기효능감과 창의성과의 관계를 단정적으로 결론 내리기 곤란하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창의성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보고한 김원경과 우남희(2002)의 선행연구에 기초하여, 내적 동기원으로서의 자기효능감과 창의성의 관계를 연구하고자 한다.

창의성에 있어서 핵심적인 요인이 개인이라 할지라도 창의성은 개인의 역량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개념이다. 개인의 다양한 역량은 환경적 조건 및 다양한 요인들과 복합적으로 상호 작용하여 창의성을 발현시킨다(김명숙, 2001). 따라서 창의성에 관한 연구는 개인적 특성과 더불어 환경 요인을 동시에 연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창의성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창의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환경조성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왔다(Amabile & Hennessey, 1989; Amabile & Gryskiewicz, 1989a; Amabile & Gryskiewicz, 1989b; Ekvall, 1995; Hucker, 1995; Rogers, 1954; Tradif & Sternberg, 1989; Yong, 1995; 전경원, 2000, 재인용). 창의성은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능력이며 훈련에 의해서 개발될 수 있다(Stasion, 1983)는 것을 고려해 볼 때, 환경적 요인의

중요성을 더욱 인식하게 된다. Hurlock(1972)은 가정, 학교, 사회의 3가지 환경 조건이 만족될 때 창의성이 가장 잘 발달할 수 있으며 그 중에서 개인이 태어나서 최초로 경험하게 되는 가정환경, 즉 가정의 분위기나 부모의 양육태도가 창의성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김경은, 김숙령, 2001, 재인용). 어린 시절의 경험은 부모와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므로 부모의 양육태도는 창의성 개발에 핵심적인 변인이라고 할 수 있다(박성숙, 1999).

부모의 양육태도와 창의성에 관한 연구들은 서로 상반되는 결과를 보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부모의 양육태도는 창의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견해도 있다.

일부 연구들은 부모의 양육태도가 애정적이고 자율적일수록 자녀의 창의성이 발달된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즉 창의적인 아동의 가정은 자유롭고, 편안하면서도 자극적인 분위기로 인하여 창의력 촉진에 매우 유리하다는 것이다(김미영, 1985; 서영목, 1982; Dreyer & Wells, 1996; Mackinnon, 1962; Getzels & Jackson, 1962; Reskind, 1982). Weisberg와 Springer(1961)도, 아동기 때 자유를 더 많이 경험한 아동의 창의성이 더 높다고 보고했다.

이에 상반되는 견해로 부모의 양육태도가 통제적이고 거부적일수록 아동은 더 창의적이라는 결과를 보고한 연구들도 있다. 김영남(1980)은 초등학교 5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부모-자녀관계 유형과 창의성과의 관계를 조사한 결과 부자관계의 '적극적 거부형'과 자녀의 창의성이 가장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였다. 또한 Gardner(1994)가 연구한 질적 연구에서도 20세기 초기 우수한 창의성을 발휘한 개인은 부모와의 사이가 좋지 않은 가정, 그리고 "무조건적인 친밀함과 따뜻함이 결핍된 가정" 출신의 자녀들이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Goertzel과 Goertzel(1962), Weisberger과 Springer(1986)의 연구에 의해서도 지지된다. Siegelman도 418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그들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와 창의성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부모가 더 거부적인 양육태도를 지닌 대학생이 더 창의적이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Tannenbaum(1983)은 아동의 창의성과 부모의 양육태도와의 관계문헌을 고찰하면서, 아동의 창의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일반화된 부모 양육실체는 없을 것이라고 제안하기도 하였다(은경일: 1999). 또한 Koester와 Montreal(1998)가 아동기에 경험한 부모의 애정·자율적 양육태도와 성인기의 창의성을 중단 연구한 결과에서도 부모의 애정과 자율은 창의성과 관련성이 없다는 보고를 하면서 정신적 자유와 안정에 대한 경험을 증진시키는 양육요소들이 창의성 발달을 촉진시킬 것이라고 제안한 Rogers(1959)의 견해를 지지하지 않았다. Harrington(1987) 등의 연구에서도 "Rogers가 강조한 방법으로 길러진 아동들이 창의적으로 활동하고 성취하는 성인이 될 것인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다"고 하면서 Rogers가 강조한 심리적 안정과 자유스러운 환경과 창의성에 대한 관계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부모는 아동의 창의적 잠재력을 길러줄 수도 있고 저해시킬 수도 있다(Fine, 1977; Wright, 1987). 그러나 부모의 양육태도와 창의성과의 관계를 연구한 많은 연구들이 서로 상반된 견해들을 보고하면서 일관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또 대부분의 연구들이 아버지나 어머니 어느 한 쪽의 양육태도와 창의성과의 관련성에 대하여 연구하거나, 양육태도를 측정함에 있어서 아동이 아버지나 어머니의 양육태도를 다르게 인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어머니 양육태도를 한꺼번에 측정하고 있으며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태도 각각을 조사한 연구는 드물다. 뿐만 아니라 자녀가 지각하는 부모의 양육태도는 실제 부모가 지각하는 양육태도보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결정짓는데 더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이다(김애리, 1999). 이는 부모가 자녀에게 긍정적으로 대해 주더라도 자녀가 부정적으로 지각할 수도 있고, 결국 아동의 창의성에 영향을 미치는 실제 양육태도는 부모가 지각하는 양육태도가 아니라 아동이 지각하는 양육태도일 것이다. 따라서 상반된 견해를 보고하고 있는 부모의 양육태도와 창의성의 관계를 연구하는 것은 의의가 있으며, 아동이 지각하는 양육태도와 창의성의 관계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창의성이 개인과 환경의 상

호작용을 통해 결정 되어진다는 보다 확대된 최근의 연구흐름(김혜숙, 1999; 송인섭과 김혜숙, 1999)과 맥락을 같이하여 개인적 특성이 되는 아동의 자기효능감과 아동의 인적 환경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는 부모의 양육태도와 창의성의 관계를 알아봄으로써 아동의 창의성 발달을 위한 기초적 자료를 제공하고, 창의성 프로그램 개발 및 실시의 방향을 제시하여 아동이 창의적인 성인으로 성장하도록 돕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아동의 자기효능감과 창의성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1-1) 아동의 자기효능감과 언어 창의성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1-2) 아동의 자기효능감과 도형 창의성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아동이 지각하는 부모의 양육태도와 창의성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2-1) 아동이 지각하는 아버지의 양육태도와 언어 창의성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2-2) 아동이 지각하는 아버지의 양육태도와 도형 창의성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2-3) 아동이 지각하는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언어 창의성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2-4) 아동이 지각하는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도형 창의성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으로 경상북도 포항에 소재한 초등학교 5·6학년 아동 120명을 선정하였다. 이 연령의 아동을 연구대상으로 선정된 이유는 Rosenblatt와 Winner(1988)가 언급한 인습적 시기에 속하는, 즉 아동 증기는 창의성이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슬럼프(slump)의 시기로 이해되고 있으나, 이 시기는 상실의 시기가 아니라 기술과 전략에 있어서 증가

된 인습성이 아동으로 하여금 정교하고 유용한 아이디어나 판단 및 사회적으로 유용한 창의적 생산품을 생성할 수 있게 하는 기초가 되는 시기라고 하였다. 즉 다시 말하면 이 시기의 창의성은 증가된 인습성이 창의성을 떨어뜨리는 것으로서 슬럼프(stump)의 현상으로 이해되고 있으나, 이러한 현상은 정교한 기술획득의 반영이다. 또한 아동기의 창의성은 성인기 창의성의 발판이 되는(하주현, 2001) 매우 중요한 시기이며, 창의성의 질적인 변화의 시기(Dudek, 1974), 정교한 기술 획득의 반영(Runco & Charles, 1997)시기로 그 중요성을 인식하였기 때문이다.

2.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된 도구는 개인의 일반적 자기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한 자기효능감 질문지와 아동 자신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를 측정하기 위한 양육태도 검사 질문지로 구성되었으며, 창의성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토란스 창의적 사고력 검사의 언어검사와 도형검사를 실시하였다.

1) 자기효능감 척도

개인의 일반적 자기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해 만들어진 김아영과 차정은(1996)의 것을 김아영(1997)이 수정한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일반적 자기효능감 검사는 3가지 하위영역, 즉 자신감, 자기 조절 효능감, 과제 난이도 선호로 구성되어 있다. 각 변인 당 질문 문항 수는 자신감에 관한 7문항, 자기 조절 효능감에 관한 11문항, 과제 난이도 선호에 관한 7문항으로 총 2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척도의 신뢰도는 각각 하위영역 별로 자신감 Cronbach α .67, 자기 조절 효능감 Cronbach α .87, 과제 난이도 선호 Cronbach α .71이었다. 이 척도는 자기보고식 질문지로 질문의 내용이 자기 자신의 생각이나 행동과 같은가 다른가에 따라 1점(그렇지 않다)에서 5점(항상 그렇다)까지 평정하도록 한다. 역 문항의 경우 점수의 배열을 반대로 하여 채점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을 나타낸다.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변인	구분	n(%)
아동의 성별	남	62(51.7)
	여	58(48.3)
아동의 학년	5학년	60(50.0)
	6학년	60(50.0)
아버지 학력	중졸이하	8(6.7)
	고 졸	39(32.5)
	전문대졸 및 대학중퇴	10(8.3)
	대 졸	54(45.0)
어머니 학력	중졸이하	9(7.5)
	고 졸	61(50.8)
	전문대졸 및 대학중퇴	7(5.8)
	대 졸	34(28.3)
아버지 직업	대학원졸 이상	9(7.6)
	무 직	0(0.0)
	단순노무직	4(3.4)
	서비스직	7(5.8)
	판매직	10(8.3)
	사무직	70(58.3)
	관리직	8(6.7)
	전문직	5(4.2)
기 타	16(13.3)	
어머니 직업	무직 또는 주부	54(45.0)
	단순 노무직	1(0.8)
	서비스직	16(13.4)
	판매직	13(10.8)
	사무직	12(10.0)
	관리직	1(0.8)
아버지 연령	전문직	10(8.4)
	기 타	13(10.8)
	35세 이하	2(1.7)
	36-40세	21(17.5)
	41-45세	85(70.8)
어머니 연령	46-50세	9(7.5)
	51세 이상	3(2.5)
	35세 이하	6(5.0)
	36-40세	78(65.0)
	41-45세	30(25.0)
가정의 소득	46-50세	4(3.0)
	51세 이상	2(2.0)
	100만원 이하	8(6.7)
	101-200만원	32(26.7)
	201-300만원	50(41.7)
	301-400만원	19(15.8)
401-500만원	5(4.1)	
501만원 이상	6(5.0)	
합 계		120(100.0)

2) 부모의 양육태도 척도

부모의 양육태도 검사는 아동 자신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를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김유자(1996)의 「부모의 양육태도 검사」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애정-거부, 자율-통제의 2가지 하위영역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각 영역마다 15문항씩 총 3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척도의 신뢰도는 아버지 양육태도의 애정-거부가 Cronbach α .84, 자율-통제가 Cronbach α .67, 어머니 양육태도의 애정-거부가 Cronbach α .77, 자율-통제가 Cronbach α .75였다.

본 검사는 4점 Likert척도로 주어진 문항에 따라 아버지, 어머니로 나누어 항상 그렇다(4점), 자주 그렇다(3점), 가끔 그렇다(2점), 전혀 아니다(1점)로 채점한다. 역 문항의 경우에는 점수의 배열을 반대로 하여 채점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양육태도가 애정적이고 자율적인 것을 나타낸다.

3) 창의성 검사

본 연구에서 아동의 창의성을 측정하기 위해 김영채(2002)가 번안한 '한국판 TTCT(도형)검사'와 '한국판 TTCT(언어)검사'를 사용하였다. 도형검사는 성질이 비슷한 동형 검사가 아니라(하나는 언어적인 것이고 다른 하나는 시각적인 것), 비교적 독립된 검사(김영채, 2002)이다. 따라서 아동의 일반적인 창의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언어검사A형과 도형검사A형 두 가지를 모두 실시하였다.

언어검사는 질문하기(5분), 원인 추측하기(5분), 결과 추측하기(5분), 작품 향상시키기(10분), 마분지 상자의 독특한 용도(10분), 가상해 보기(5분)로 구성되어 있다. 언어검사에서 평가되는 하위요인은 유창성, 독창성, 융통성으로 이루어진다. 유창성이란 활동이 요구하는 것에 적절한 반응을 하였는가에 대한 평가이다. 독창성은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아이디어와는 다른 독특한 아이디어에 대한 평가이며, 융통성은 반응들 속에 나타나 있는 상이한 범주의 총수를 평가하는 것이다.

도형검사는 그림 구성하기, 그림 완성하기, 선 더하기로 구성된다. 각각의 하위영역에 대해 주어지는

시간은 10분씩이다. 도형검사에서 평가되는 하위요인은 유창성, 독창성, 제목의 추상성, 정교성, 성급한 종결에 대한 저항으로 구성된다. 유창성은 적절한 반응의 총수에 기초하여 채점되어진다. 독창성은 그 반응이 통계적으로 보아 얼마나 드물게 일어나며 특별한지에 따라 평가된다. 제목의 추상성은 종합과 조직화라는 사고과정이 포함되는 능력이다. 정교성은 얼마나 세부적으로 자세하게 표현하고 있는가에 대한 평가이다. 성급한 종결에 대한 저항은 성급하게 반응을 폐쇄하고 종결시키는 것을 지연시킬 줄 아는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다.

결과의 채점은 '토란스 창의력 한국 FPSP/현곡 R & D'의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행해졌으며, 채점자내 신뢰도는 도형검사 $r = .98$, 언어검사 $r = .91$ 로 나타났다.

3. 자료수집

본 조사에 질문지에 대한 문항 이해도 및 질문에 응답하는 방식에 문제점이 있는 가를 파악하기 위하여 2003년 7월 10일부터 12일 까지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질문지의 내용을 수정·보완한 후 2003년 7월 14일부터 19일까지 경상북도 포항지역 H초등학교 5·6학년 학생들에게 질문지를 배포하여 회수하고 창의성 검사를 실시하였다.

4. 자료처리 및 분석

연구문제의 분석을 위하여 SPSS/win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의 통계분석방법을 사용하였다. 연구도구의 신뢰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Cronbach α 계수를 산출하였고, 연구대상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 및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부모의 사회 인구학적 변인들에 따른 아동의 창의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t검증을 실시하였고, 본 연구의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피어슨의 적률 상관계수(r)를 산출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아동의 창의성 평균과 표준편차

연구대상의 창의성 언어검사와 도형검사에서 나타난 평균과 표준편차를 <표 2>에 제시하였다. 언어 창의성의 평균은 99(SD=12.08)이었고, 도형 창의성의 평균은 120(SD=13.94)으로 나타났다.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도형 창의성이 언어 창의성의 평균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다.

<표 2> 아동의 언어·도형 창의성의 평균과 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창의성 총점
언어창의성	99(12.08)	11880
도형창의성	120(13.94)	14400

2. 부모의 학력, 직업 및 수입과 창의성과의 관계

1) 아버지 학력과 아동의 창의성

아버지의 학력수준에 따른 아동의 창의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t검증을 실시한 결과 <표 3>에서처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표 3> 아버지 학력에 따른 아동의 창의성

	학력수준	n	M	SD	t	p
언어 창의성	대졸이상	63	100.06	12.15	-.99	.32
	전문대졸 이하	57	97.86	12.01		
도형 창의성	대졸이상	63	121.25	13.61	-.26	.79
	전문대졸 이하	57	120.58	14.41		

2) 어머니 학력과 아동의 창의성

어머니 학력수준에 따른 아동의 창의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t검증을 실시한 결과 <표 4>에서처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표 4> 어머니 학력에 따른 아동의 창의성

	학력수준	n	M	SD	t	p
언어 창의성	대졸이상	43	100.60	12.09	-1.07	.28
	전문대졸 이하	77	98.13	12.07		
도형 창의성	대졸이상	43	122.74	13.80	-1.06	.29
	전문대졸 이하	77	119.92	14.01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3) 아버지 직업과 아동의 창의성

아버지 직업유형에 따른 아동의 창의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t검증을 실시한 결과 <표 5>에서처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표 5> 아버지 직업유형에 따른 아동의 창의성

	직업	n	M	SD	t	p
언어 창의성	사무·관리 ·전문직	99	98.79	11.16	.45	.65
	무직, 단순 노무·서비스 ·판매직	21	100.09	14.21		
도형 창의성	사무·관리 ·전문직	99	120.04	14.46	1.53	.12
	무직, 단순 노무·서비스 ·판매직	21	125.14	10.50		

4) 어머니 직업과 아동의 창의성

어머니 직업유형에 따른 아동의 창의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t검증을 실시한 결과 <표 6>에서처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표 6> 어머니 직업에 따른 아동의 창의성

	직업	n	M	SD	t	p
언어 창의성	무직, 단순 노무·서비스 ·판매직	84	99.38	12.45	.50	.62
	사무·관리 ·전문직	36	98.16	11.33		
도형 창의성	무직, 단순 노무·서비스 ·판매직	84	120.52	14.90	-.49	.63
	사무·관리 ·전문직	36	121.89	11.53		

5) 가정의 월 평균 소득과 아동의 창의성

가정의 월 평균 수입정도에 따른 아동의 창의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t검증을 실시한 결과 <표 7>에서처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표 7〉 가정의 수입에 따른 아동의 창의성

	직업	n	M	SD	t	p
언어 창의성	300만원이하	78	97.49	13.23	-1.91	.06
	300만원초과	42	101.86	9.08		
도형 창의성	300만원이하	78	121.04	14.49	.11	.91
	300만원초과	42	120.74	13.03		

3. 아동의 자기효능감과 창의성과의 관계

1) 자기효능감과 언어 창의성과의 관계

자기효능감과 언어 창의성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피어슨의 적률 상관계수(r)를 산출한 결과 자기 효능감과 전체 언어 창의성과는 유의한 상관이 없었으며, 언어 창의성 하위요인과의 유의한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자기효능감과 도형 창의성과의 관계

자기효능감과 도형 창의성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피어슨의 적률 상관계수(r)를 산출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표 8〉에 의하면 자기효능감과 전체 도형 창의성과는 유의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으나,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과 도형 창의성의 하위요인과는 부분적으로 유의한 상관이 있었다. 즉 자기 조절 효능감과 정교성($r = .195, p < .05$)이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고, 과제 난이도 선호와 제목의 추상성($r = .185, p < .05$)과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자기효능감과 도형 창의성과의 관계

	유창성	독창성	제목의 추상성	정교성	성숙한 종결에 대한 저항	도형 창의성 총점
자신감	.001	.044	-.203	-.006	-.057	-.026
자기조절효능감	-.104	-.081	.174	.195*	.120	.138
과제난이도선호	-.156	-.055	.185*	.104	.089	.091
자기효능감총점	-.110	-.049	.152	.141	.078	.099

* $p < .05$

3. 부모의 양육태도와 창의성과의 관계

1) 아버지 양육태도와 언어 창의성과의 관계

아버지 양육태도와 언어 창의성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피어슨의 적률 상관계수(r)를 산출한 결과는 〈표 9〉와 같다.

〈표 9〉에 의하면 아버지의 애정-거부 양육태도와 언어 창의성은 유의한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언어 창의성의 하위요인과의 유의한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자율-통제 양육태도와 전체 언어 창의성과($r = .238, p < .01$)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고,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유창성, 융통성, 독창성($r = .285, p < .01$; $r = .244, p < .01$; $r = .188, p < .05$)과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9〉 아버지 양육태도와 언어 창의성과의 관계

아버지 양육태도	유창성	융통성	독창성	언어 창의성 총점
애정-거부	-.027	-.058	-.037	-.035
자율-통제	.285**	.244**	.188*	.238**

* $p < .05$, ** $p < .01$

2) 아버지의 양육태도와 도형 창의성과의 관계

아버지 양육태도와 도형 창의성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피어슨의 적률 상관계수(r)를 산출한 결과는 〈표 10〉과 같다.

〈표 10〉에 의하면 아버지 애정-거부 양육태도와 도형 창의성과는 유의한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자율-통제 양육태도는 도형 창의성과($r = .332, p < .01$)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 아버지 양육태도와 도형 창의성과의 관계

아버지 양육태도	유창성	독창성	제목의 추상성	정교성	성급한 종결에 대한 저항	도형 창의성 총점
애정-거부	.176	.122	.097	.157	.136	.173
자율-통제	.069	.144	.195*	.319**	.354**	.332**

* $p < .05$, ** $p < .01$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아버지의 자율-통제 양육태도와 제목의 추상성, 정교성, 성급한 종결에 대한 저항과 ($r = .195, p < .05$; $r = .319, p < .01$; $r = .354, p < .01$)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언어 창의성과의 관계

어머니 양육태도와 언어 창의성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피어슨의 적률 상관계수(r)을 산출한 결과는 〈표 11〉과 같다.

〈표 11〉에 의하면 어머니의 애정-거부 양육태도와 언어 창의성과는($r = .186, p < .05$)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으나 하위요인과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율-통제 양육태도와 언어 창의성과는 유의한 상관이 없었고 언어 창의성의 하위요인과의 유의한 상관이 없었다.

4) 어머니 양육태도와 도형 창의성과의 관계

어머니 양육태도와 도형 창의성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피어슨의 적률 상관계수(r)을 산출한 결과 어머니의 애정-거부 양육태도와 자율-통제 양육태도 모두 도형 창의성과 유의한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도형 창의성의 하위요인과의 유의한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 어머니 양육태도와 언어 창의성과의 관계

어머니 양육태도	유창성	융통성	독창성	언어 창의성 총점
애정-거부	.101	.121	.109	.186*
자율-통제	.140	.123	.070	.099

* $p < .05$

I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아동의 자기효능감 및 부모의 양육태도와 창의성과의 관계를 알아보려고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고 그에 대한 논의를 하고자 한다.

1. 아동의 자기효능감과 창의성과의 관계

자기효능감과 창의성과의 관계를 알아본 결과, 자기효능감과 언어 창의성은 유의한 상관이 없으나 도형 창의성과는 부분적으로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기효능감의 자기 조절 효능감과 도형 창의성의 정교성이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으며, 과제 난이도 선호와 제목의 추상성과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자기효능감과 창의성의 상관이 비교적 낮다고 보고한 배진수와 이영만(2000)의 연구결과와 부분적으로 맥락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김민정(2000)이 자기효능감과 창의성과의 상관을 연구하고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창의성이 높다고 보고한 연구결과와는 상반되는 결과를 보이고 있으며 김원경과 우남희(2002)가 자기효능감이 창의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라고 보고한 연구와도 일치하지 않는다.

선행연구와 본 연구결과가 일치하지 않는 이유는 서로 다른 척도의 사용을 들 수 있다. 배진수와 이영만(2000)의 연구와 김민정(2000)의 선행연구에서는 자기효능감의 측정을 위해서 과제구속적인(task-specific) 도구를 사용해야 한다(권대훈, 장희숙, 1995)는 지적에 따라 정택희(1987)에 의해 수학적 학습에 대한 일반적 효능 기대수준을 측정할 수 있도록

개발된 것을 이동영(1997)이 재구성한 것을 사용하였다. 창의성 측정을 위해서는 토란스 창의적 사고력 검사의 도형 검사만을 실시하였으며, 또한 이강섭과 황동주(2003)의 연구에 의하면 수학 창의성과 도형 창의성은 비교적 높은 상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선행연구의 척도는 수학 학습의 자기효능감과 수학 학습과 상관이 비교적 높은 도형 창의성과의 관계를 연구하였으므로 연구결과 또한 자기효능감과 창의성의 상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를 일반적 자기효능감과 일반적 창의성과의 관계를 살펴본 것으로 확대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겠다. 본 연구는 일반적 자기효능감과 일반적 창의성과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일반적 자기효능감 척도를 사용하여 도형 창의성과 언어 창의성과의 관계를 모두 살펴보았다. 그 결과 전체적으로는 자기효능감과 언어 창의성 및 도형 창의성 모두 상관이 없으나 부분적으로는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 중 자기 조절 효능감과 도형 창의성의 정교성이 과제 난이도 선호와 제목의 추상성이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었다. 자기효능감과 언어 창의성이 상관이 없이 나타난 이유는 도형 창의성과는 달리 언어 창의성의 하위요인이 유창성, 융통성, 독창성으로 구성되어 처음 자신이 발산한 아이디어를 다듬어 나가는 평가가 생략되어 있기 때문이다. 유창성은 한 과제에 대하여 발산한 아이디어의 가지 수를 평가한 것이고, 융통성은 그 아이디어의 범주가 얼마나 다양한가 즉, 한 가지 방향으로 치우치지 않고 여러 가지 관점에서 사고하고 있는가에 대한 평가이다. 독창성은 그 아이디어가 다른 사람에 비해 얼마나 독특한가에 대한 평가로 이제 가지의 하위요인에서는 자신이 발산한 아이디어를 다시 돌아보고 다듬어 나가는 과정의 평가가 없다. 얼마나 더 언어적으로 세련되게 자신의 생각을 잘 표현할 수 있는가에 대한 능력은 언어 사용 능력의 창의성이다. 이처럼 언어 창의성의 평가에서 같은 생각을 담은 언어적 표현이더라도 어떤 단어로,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그 전달의 정도와 느낌은 달라지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가 생략되어 있어 자기효능감과 상관이 없게 나타났을 것이다.

자기효능감은 주어진 과제를 수행할 때 끝까지 자신의 능력을 믿고 최선을 다하여 행하는 신념이므로 만약 언어 창의성의 하위요인 중 이러한 과정의 평가가 있었다라면 제한된 시간의 과제수행에서 자기효능감이 높은 아동이 주어진 시간동안 더 높은 언어적 창의성을 발휘하였을 것이다.

자기 효능감과 언어 창의성과의 결과와 연결하여 생각하여 본다면 도형 창의성에서 나타난 결과에 대한 해석이 더욱 더 쉬울 것이다. 도형 창의성의 하위요인인 정교성은 자신의 생각을 그림으로 나타내면서 얼마나 세부적으로 자세하게 표현하고 있는가에 대한 평가이고, 제목의 추상성은 종합과 조직화라는 사고과정이 포함되는 능력으로 과제 수행의 가장 마지막에 자신이 표현한 것을 함축하여 정리하는 능력으로 자신이 먼저 표현한 것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하는 기회를 가지고 생각을 정리하여 표현하는 과정이다. 이는 주어진 시간 동안 아동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경우에 실력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자기효능감은 주어진 과제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노력이 필요한 과제와 상관이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더 구체적인 연구를 위해서 권대훈(1995)과 장휘숙(1995)의 과제 구속적인 척도의 사용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배진수와 이영만(2000)이 제시하고 있는 것처럼 창의성의 과제와 관련 있는 자기효능감의 척도의 개발이 시급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2. 부모의 양육태도와 창의성과의 관계

부모의 양육태도와 창의성과의 관계를 알아본 결과 아버지의 애정-거부 양육태도와 언어 창의성과 도형 창의성 모두와 유의한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아버지의 자율-통제 양육태도와 언어 창의성과는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도형 창의성과도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아버지의 자율-통제 양육태도와 언어 창의성의 유창성, 독창성, 융통성과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었으

며 도형 창의성의 제목의 추상성, 정교성, 성급한 종결에 대한 저항과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애정적이고 자율적일수록 자녀의 창의성이 발달된다는 견해를 보고한 연구(김미영, 1985; 서영목, 1982; Dreyer & Wells, 1996; Mackinnon, 1962; Getzels & Jackson, 1962; Reskind, 1982)와 부분적으로 맥락을 같이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아버지의 양육태도를 자율적인 것으로 지각한 초등학생일수록 타율적인 것으로 지각한 초등학생보다 창의성이 더 높다는 결과를 보고한 주순남(2002)의 연구와 맥락을 같이 하고, 아동기 때 자유를 더 많이 경험한 아동의 창의성이 더 높다고 보고한 Weisberg와 Springer(1961)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 이는 아동의 창의성 발달을 위해서 아버지의 자율적인 양육태도가 더 바람직함을 제시한다.

어머니 양육태도와 창의성과의 관계를 알아본 결과 어머니의 애정-거부 양육태도와 언어 창의성과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었으나 도형 창의성과는 유의한 상관이 없었다. 또한 어머니의 자율-통제 양육태도는 언어 창의성 및 도형 창의성과 유의한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양육태도를 애정으로 지각하는 초등학생의 창의성이 거부로 지각한 초등학생의 창의성 보다 더 높다고 보고한 주순남(2002)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며 부모의 양육태도가 애정적일수록 자녀의 창의성이 발달된다는 견해(김미영, 1985; 서영목, 1982; Dreyer & Wells, 1996; Mackinnon, 1962; Getzels & Jackson, 1962; Reskind, 1982)와도 맥락을 같이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에서 아버지의 양육태도가 자율적일수록 언어 창의성 및 도형 창의성과 유의한 상관이 있고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애정적일수록 언어 창의성과 유의한 상관이 있다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아버지의 양육태도와 어머니의 양육태도는 서로 독립적으로 자녀의 창의성과 상관이 있으며, 이는 부모의 양육태도를 연구함에 있어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각각 연구할 필요성이 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Lamb(1977)은 가정에서 아버지, 어머니, 아동의 상호작용을 관찰했는데 그 상호작용의 양상은 아버지들은 어린이와 함께 놀이하는 목적이 더 많았고 어머니들은 보호(caretaking)의 목적이 훨씬 더 많았다는 뚜렷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했다. 따라서, 아버지는 아동과 함께 놀이하는 시간에 더 많은 자율권을 허락함으로써 아동의 새로운 경험을 장려하고 도전하고 모험하는 태도를 길러 줄 것이다. 이는 Rogers(1959)가 창의성을 촉진시키는 환경으로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심리적 자유가 개인의 감정·충동·사고·행동상의 완전한 자유를 허용한다(윤중건, 1998)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때 창의성을 촉진시키는 양육태도로 자율권을 많이 허락하는 태도가 바람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역할을 아버지가 담당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어머니는 일상에서 경험하는 어려운 상황이나 새로움에 대한 두려움을 감소시키고 이러한 상황에서 나타나는 불안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어렵고 새로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애정적인 양육태도로 자녀에게 안정을 주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는 Rogers(1959)가 주장하는 창의성을 촉진시키는 환경에서 중요한 심리적 안정을 주는 양육태도일 것이다. 따라서 아버지의 자율-통제 양육태도는 Rogers(1959)가 창의성 발달을 위해서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심리적 자유를 주는 양육태도로 이해할 수 있고, 어머니의 애정-거부 양육태도는 심리적 안정을 주는 양육태도로 이해할 수 있다. 즉 아동의 창의성 발달을 위해서는 심리적 자유와 심리적 안정을 주는 환경이 필요하고 이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서로 다른 역할을 하면서 아동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겠다.

이상과 같은 논의를 통해 후속연구를 위하여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창의성의 과제에 맞는 자기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의 개발이 시급하다. 따라서 창의성의 과제에 맞는 자기효능감척도를 사용함으로써 보다 명확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후속연구가 제기된다.

둘째, 본 연구결과가 시사하는 바와 같이 아동의 창의성 발달을 위해서 아버지의 역할과 어머니의

역할이 서로 독립적이고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있으므로 추후에는 아버지의 역할과 어머니 역할을 각각 더 구체적으로 연구함으로써 창의성 발달을 위해 바람직한 아버지 역할과 어머니 역할에 대한 보다 더 다양한 정보를 제공 할 수 있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경옥(1996). 수학문제 해결에 있어서 자기효능감의 매개적 역할 분석.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강윤숙(1987).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태도.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권대훈(1995). 목표지향성과 자기효능이 학습방략과 학업성적에 미치는 영향. 학생지도 연구, 15, 33-69, 안동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 김경은, 김숙령(2001). 어린이를 위한 유아 창의성 교육의 이론과 실제. 서울: 교육아카데미
- 김명숙(2001). 통합적 창의성 모형의 구성. 교육심리 연구, 15(4), 43-68.
- 김미경(1985). 아버지 역할과 유아의 지각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민정(2000). 초등학생의 통제소재 및 자기효능감과 창의성과의 관계. 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선혜(1998). 일반적 자기효능감이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애리(1999). 부모의 양육태도와 학업배려가 자녀의 시험 불안 및 자존감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영남(1980). 부모 자녀관계 및 출생순위와 창의성에 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영채(2002). 창의적 문제해결: 창의력의 이론, 개발과 수업. 서울: 교육과학사.
- 김영채(2002). 한국판. TTCT(언어, 도형)검사 표준화 창의력 검사. 토란스 창의력 한국 FPSP / 현곡 R & D.
- 김원경, 우남희(2002). 아동의 창의성에 대한 심리적 관련 변인 연구. 아동학회지, 23(2).
- 김유자(1996). 아동이 지각한 가정 환경에 따른 정서감 유형과 창의성과의관계.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현순(1993). 부모의 양육방법과 학습흥미 및 학업성취와의 관계. 홍익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계도(1993). 학습된 무기력과 자기효능감 및 학업성취간의 관계 연구. 충북대학교 교육대학원.
- 박성숙(1999). 부모의 양육태도와 아동 창의성과의 관계. 목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숙희(1997).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아동의 인지양식과 학업 성취에 미치는 효과.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배진수, 이영만(2000). 초등학생의 자기효능감, 창의적 성격과 창의성과의관계. 초등교육연구, 13(2), 43-61.
- 서영목(1982). 가정환경요인과 창의성 발달과의 관계.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용배(1994). 자기효능감이 아동의 학습의욕 및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성심, 이종승(1982).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한 아동의 지각과 정서적 특성의 관계. 연구노트, 11(1).
- 온경일(1999).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가 창의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 관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중건(1998). 창의력의 이론과 실제. 서울: 원미사.
- 윤지영(2001).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기효능감이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동영(1997).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기효능감 및 학업성취와의 관계. 한국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원영(1983). 어머니의 자녀 교육관 및 양육태도와 유아발달과의 관련성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지원(1997). 청소년 흡연과 환경적 요인, 스트레스 및 자기효능감과의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기선(1994). 가정환경과 창의성 및 학업성취와의 관계연구.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선하(1993). 창의성예의 초대. 서울: 교보문고.
- 장휘숙(1995). 일반적 자기효율성과 특정한 과제에 대한 자기 효율성 및 그 관련변인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8(1), 120-135.
- 전경원(2000). 동·서양의 하모니를 위한 창의학. 서울: 학문사.
- 조성연(1990). 아동의 창의성 발달 및 이에 관련된 생태학적 변인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주순남(2002). 초등학교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기효능감 및 창의성과의 관계. 영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차정은(1997). 일반적 자기효능감 척도 개발을 위한 일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하대현(2002). T. Amabile의 창의성 이론에 근거한 동기와 창의성간의 관계 연구. 교육심리연구, 14(2), 111-142.
- 하주현(1999). 아동기에서 청년기까지의 창의적 인지와 창의적 인성의 발달경향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하주현(2001). 창의성 발달에 관한 이론적 연구. 교육심리연구, 15(2), 139-156.
- 한기숙(1995). 자기효능감이 문제해결수행에 미치는 영향. 국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Albert, R. S. (1996). Some reasons why childhood creativity often fails to make it as puberty into the real world, In M.A. Runco(Ed.), *New Directions for Child Development: Creativity from Childhood Through Adulthood*, 72, 3-29. San Francisco, US: Jossey-Bass Publishers.
- Amabile, T. M. 저, 전경원 역(1998). *창의성과 동기유발*. 서울: 창지사.
- Bandura, A. (1977).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84, 191-215.
- Bandura, A. (1982). Self-efficacy mechanism in human agency. *American Psychologist*, 37, 122-147.
- Bandura, A. (1986). *Social foundations of thought and actions: A social cognitive theory*. Englewood cliffs, New Jersey. Prentice Hall.
- Berk (2000). *Child Development*. Allyn & Bacon.
- Bong, M. (1997). Generality of academic self-efficacy judgements: Evidence of hierarchical relations.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86, 1043-1051.
- Chamber, J. A. (1964). Relating personality and biographical factors to scientific creativity. *Psychological Monographs : General and Applied*, 78, Whole, No.584.
- Dacey, J. S. (1989). Peak periods of creative growth across the life-span. *Journal of Creative Behavior*, 23, 224-247.
- Dreyer & Wells. (1996). Parental values, parental control, and creativity in young childre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 Fine, M. J. (1977). Facilitating parent-child relationships for creativity. *The Gifted Child Quarterly*, 21, 487-500.
- Gardner, H. (1994). *Creating minds*. New York: Basic Books.
- Getzels, J. W. & Jackson, P. W. (1961). Family environment and cognitive style: a study of the sources of highly creative adolescent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26, 351-359.
- Goertzel, M. G. & Goertzel, V. (1962). *Cradles of eminence*. London: Constale.
- Goertzel, M. G., Goertzel, V., & Goertzel, T. G. (1978). *Three hundred eminent personalities*. San Francisco: Jowwey-Bass.
- Guilford, J. P. (1950). Address of the president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at Pennsylvania State College.

- Harrington, D. M., Block, J. H., & Block, J. (1987). Testing aspects of Carl Roger's theory of creative environments: Child-rearing antecedents of creative potential in young adolescen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2, 851-856.
- Hurlock, E. (1978). *Child development*(6th ed.). New York: McGraw-Hill, Inc.
- John, L. D. (1985). Creative thinking potential another example of u-shaped development?. *The Creative Child and Quarterly*, 10, 146-159.
- Koestner, R., Walker, M., & Fichman, L. (1998). Childhood Parenting Experience and Adult Creativity.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33, 92-107.
- Lamb, M. E. (1977a). Father-Infant and Mother-Infant Interaction in the First Year of Life. *Child Development*, 48, 167-181.
- Lesner, W. J. & Hillman, D. (1983). A developmental schema of Creativity Behavior, 17, 103-114.
- Mackinnon, D. W. (1962). The nature and nurture of creative talent. *American Psychologist*, 17, 484-495.
- Martocchio, J. J. (1994). Effects of conceptions of ability on anxiety, self-efficacy, and learning in training.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79(6), 819-825.
- Owen, S. V. & Forman, R. D. (1988). Development of a college academic self-efficiency scale. The Annual Meeting of the National Council on Measurement in Education.
- Rejskind, F. G. (1982). Autonomy and Creativity in children. *Journal of Creative Behavior*, 16, 58-67.
- Roe, A. (1951b). A psychological study of physical scientists. *Genetic Psychology Monographs*, 43, 121-239.
- Rogers, C. (1959). *Toward a theory of creativity*. In H.H. Anderson,(ed.), *Creativity and its cultivity*, (pp. 69-52). New York: Harper & Brothers.
- Rosenbatt, E. & Winner, E. (1988). The art of children's drawings. *Journal of Aesthetic Education*, 22, 3-15.
- Runco, M. A. & Charles, R. E. (1997). Developmental trends in creative potential and creative performance. In M. A. Runco(Ed.), *The Creativity Research Handbook*, Vol. 1, NJ: Hampton Press.
- Santrock, J. W. (1988). *Adolescence*. New-York: McGraw-Hill.
- Schunk, D. M. (1981). Modeling and attributional effects on children's achievement: A self-efficacy analysis.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73, 93-105.
- Schunk, D. H. (2001). Social cognitive theory and self-regulated learning. In B. J. Zimmerman & D. H. Schunk (Eds.), *Self -regulated learning and academic achievement*(2nd ed.). Mahwah, NJ: Erlbaum.
- Sternberg, R. J. & Lubart, T. I. (1991). *An investment theory of creativity and its development*, 34, 1-31
- Stiepek, D. J. (1996). Motivation and instruction. In D. C. Berliner & R. C. Calfee(EDS.), *Handbook of educational psychology*. New York: Macmillan.
- Torrance, E. P. (1962). *Guiding creative talent*. Englewood Cliffs, N. J : Prentice Hall.
- Torrance, E. P. (1984). A retrospective view of the Minnesota and Georgia studies of creativity behavior. In *New Directions in Creativity Research*, 65-73. Ventura, Ca; Ventura Country Super intendent of Schools Office.
- Torrance, E. P., Ball, O. E., & Sufter, H. T. (1998). *Torrance tests of creative thinking: Streamlined Scoring Guide Figural A & B*. Bensenville, Illinois: Scholastic Testing Service Inc.
- Torrance, E. P. & Saffer, H. T. (1999). *Making the creative leap beyond*. Buffalo, NY; Creative Education Press.
- Wallas, M. A. & Kogan, N. (1965). *Models of thinking in young children*. NY: Holt.

Weisberg, P. S. & Springer, K. J. (1961). Environmental factors in creative function.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5, 64-74.

Wright, C. (1987). Nurturing creative potential: An

interactive model for home and school. *The Creative and Quarterly*, 12, 31-38.

(2004년 7월 30일 접수, 2004년 12월 22일 채택)